

도시여행자 김대홍이
자전거 타고 카메라에 담은
우리 도시 이야기



카메라,
자전거와 떠나는
우리 도시 20

—
글, 사진 김대홍

전북교육문화회관



EM153482

PHOTONET



도시의 속살

카메라, 자전거와 떠나는 우리 도시 20

© 김대홍, 2010

1판 1쇄 인쇄 | 2010년 9월 6일

1판 1쇄 발행 | 2010년 9월 15일

지은이 | 김대홍

펴낸이 | 최광열

만든이 | 최재균

편집 | 이윤희

디자인 | 최혜진, 박상희

표지 디자인 | 최혜진

마케팅 | 김승환, 이재복

포토넷PHOTONET은

사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사진에 관한 전문성을 서비스합니다.

단행본, 작품집 등 사진 관련 도서를 출간하고 다양한 기획 사업을 운영합니다.

포토넷PHOTONET은 더 풍성하고 수준 높은 사진문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포토넷PHOTONET

add_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289 JNJ빌딩 3층 (주)세화전자 포토넷사업부

tel_ 02-736-1214 fax_ 02-736-1217 web_ www.mphotonet.com

ISBN 978-89-93818-14-7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포토넷PHOTONET은 (주)세화전자의 임프린트입니다.

잘못 만든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드립니다.

여기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은 신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포토넷PHOTONET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례

여는 글 | 나는 늙는다, 도시도 늙는다 4

도시, 태어나다 海 비릿한 생명력, 도시를 잉태하다

오징어와 석탄이 넘치던 까만 바다 15
강원도 동해시 묵호읍

철길이 열리고 학교가 시작되다 28
인천시 배다리

일제가 남긴 흔적 지나 '산장의 여인'을 만나다 40
경상남도 마산시 신마산

비린내 나는 부두, 비린내 나던 사랑 52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

새우젓 익는 냄새에 사라진 뱃길 그림더러 66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면

도시, 자라다 山 도시를 품다, 문화가 꽃피다

찬란했던 가락국 문화가 이어지고 이어져 83
부산시 동래

개혁군주 정조의 꿈이 잠들다 96
경기도 수원시 화성

검은 황금 시절 지나 봄은 다시 오리니 108
강원도 삼척시 도계면

퍼주고 퍼주어도 터내지 않는 어머니 같은 128
서울시 시흥동

도시, 성숙하다 江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다

홍어도 삭고, 집도 거리도 맛있게 곱삭아가는 145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

인절미처럼 쌓인 옛 역사를 맛보다 158

충청남도 공주시 강남이남

빌딩숲에 묻힌 2천 년 역사가 숨을 쉬더라 178

서울시 송파

벚길 따라 신명나던 장터엔 흑백사진만이 190

경기도 안성시 옛 안성읍

중원을 뒤흔든 패기도 유장한 강물에 씻기고 206

충청북도 충주시

아늑한 풍경에 긴장 풀고, 매끈한 미내다리에 넋을 놓다 218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도시, 곱게 나이 든다 地 풍요로와 더 애달프다

영웅은 전설을 만들고, 백성들은 술을 빚고 235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

애달프다! 역류하는 민초의 피와 고달픈 삶이여 250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흘러간 세월도 다가올 시간도, 가맥 한잔으로 어우러지네 270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마을

환란 속에서도 곳곳이 일어선 남도 대표고을 282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도를 호령하던 살아있는 역사박물관 302

대구시 중구

닫는 글 | 자전거로 달리고, 카메라에 담다 316

흘러간 세월도 다가올 시간도, 가맥 한잔으로 어우러지네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마을



“띠리링.”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다. 자전거를 타고 문화 홍보 일을 하는 이 근삼 씨였다. 전주에 놀러 가자는 제안이었다. 전주는 예정된 여행지 중 한 곳이었다.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결국, 음악을 하는 두 명과 함께 네 명이 자전거를 고속버스에 싣고 길을 나섰다. 목적지는 전주 한옥마을. 교동과 풍남동 3가 일대 한옥 700동이 밀집한 마을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우리나라 도시에서 이처럼 큰 한옥마을은 전주 한옥마을을 빼곤 서울 북촌 한옥마을이 유일하다.

전주 한옥마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빼앗은 일본인들이 전주 지역 상권을 잡고 세를 넓히자, 한국인 신흥부자들은 교동과 풍남동 일대 한옥 촌을 만들며 민족 자존심을 지켰다. 이후 교동과 풍남동은 우리나라 고유문



전주 교동은 한옥마을이다. 지붕과 지붕이 이어져 만들어낸 선이 참 곱다.

화를 지키면서 부촌이라는 자긍심을 이어갔다. 1960년대에는 전주 남중학교, 전주 여자상업고등학교, 전주 공업전문대학 등이 들어서며 교육중심지로서도 명성을 떨쳤다.

이러한 분위기가 바뀐 것은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된 뒤다. 집을 짓고 고치는데 제한을 받으면서 중산층들이 대거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빈자리는 싼 집을 찾던 사람들이 메웠다. 부촌으로 불리던 교동과 풍남동은 빈촌 또는 판자촌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주민들 불만은 높아졌다.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정책 해제를 요구했고, 1987년 '미관지구'로 바뀌고, 1995년엔 이마저 폐지됐다. 그러던 마을이 지금은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를 잡았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처럼 마을도 나이를 먹는다. 사람 몸에 주름이 새겨지는 것처럼 마을에도 세월의 흔적이 남는다. 전주 한옥마을엔 일제강점기를 기억하게 하는 70여 채가 넘는 일제 가옥과 전주를 대표하는



작. 벌이 따뜻하다.
이불 속에 '속' 들어가
온기를 가득 느끼고 싶다.
우. 왕은 사라졌고
왕조도 잊혀졌다. 하나
한옥마을엔 여전히
황손이 산다.

최명희 작가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런 흔적을 때론 안고, 때론 지우며 한옥마을은 변하는 중이다. 그 흔적을 찾아 나섰다.

고종 황제 손자가 사는 마을, 전체가 미술관인 마을

일행은 황손의 집인 승광재(承光齋)에 묵었다. 승광재는 고종 황제 손자이자 의왕 아들인 황손 이석이 사는 집이다. 그는 1970년대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란 노래 〈비둘기집〉으로 많은 사랑을 얻었다. 집은 2004년 10월에 문을 열었다. 방들은 모두 작다. 제일 큰 방이라도 들어가면 빠듯한 크기다. 마당 입구에 장작이 쌓여 있어, 장작불을 때나 싶었는데 난방은 현대식이란다. 한옥 체험을 하게 만들었지만, 현대식 생활에 익숙한 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초기엔 완전 전통방식을 고집했지만, 불편해하는 이들이 많아 바꾸었다.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놓도록 한 점은 애교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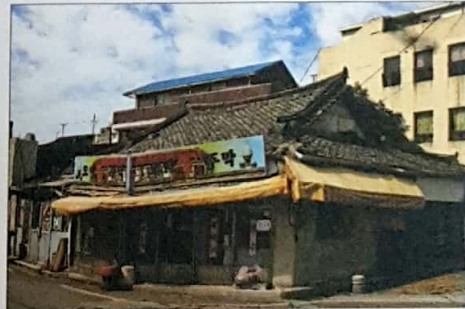
동네 또 다른 민박집을 구경삼아 찾아 나섰다. 원불교가 운영하는 민박집에 들어갔다. 처마에 메주가 매달려 있어 가까이 가서 보니 메주 모양 전등이다. 처마 밑줄에 이불이 걸려 있다. 이불을 햇볕에 쬔면 뽕뽕해진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빨래를 빨고 나면 나를 불렀다. 어머니와 함께 대야에 담긴 빨래를 들고 옥상에 올라간다. '탈탈' 털면서 너는 소리가 그렇게 경쾌할 수 없었다. 그럴 때면 이웃집 옥상에도 빨래를 널고 있어 이웃과 인사를 나누곤 했다. 반나절 뒤면 빨래를 개어오라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햇볕을 가득 머금은 이불에 들어가면 그렇게 푸근할 수가 없다. 동생과 함께 이불에 들어가 포근함을 즐기노라면 곧이어 어머니가 재촉하는 소리가 들린다.

민박집 방 앞엔 살짝 걸터앉을 수 있는 작은 마루가 있다. 방에 들어가기 전 발을 닦는 계단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잠시 쉬는 쉼터이기도 하다. 별이 좋은 날이면 이곳에 걸터앉아 쉬기가 참 좋다. 민박집을 관리하는 어르신이 이런저런 손님 이야기를 해주신다. 하룻밤 자고 몰래 줄행랑 치는 사람, 아침에 돈을 내지도 않고 나가면서 “종교단체에서 무슨 돈을 받느냐.”라며 큰소리를 치던 사람 이야기다. 이어 “초창기 그랬다.”라면서 웃는다.

한옥마을 집은 다양하다. 100평이 넘는 신식한옥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잔뜩 내려앉은 오래된 한옥도 있다. 일본식 집도 적지 않다. 전주문화재단이 펴낸 《전주 근대생활조명, 100년》에 따르면 2006

좌 춘추당은
강점기 때 건물이다.
물이 지닌 무게감이
관들어진 게 아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여기 막걸리 한 사발
고 외치고 싶은 곳,
모아주막이다.



년 말 기준, 일본식 집이 74채다. 일본식 집은 한눈에 봐도 주변 집들 사이에서 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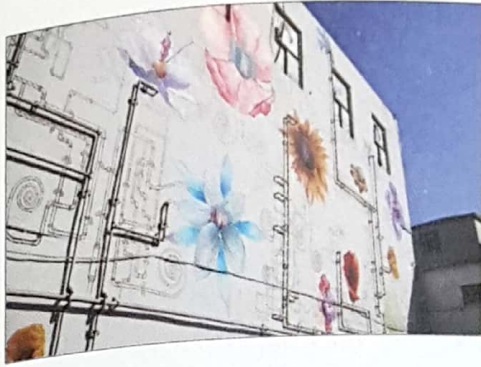
각기 다른 집에 사는 주민들은 생각도 다르다. 누군가는 이곳을 과거 부촌으로 만들길 바라고, 누구는 전통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공사소음과 관광객들 발길을 부담스러워한다. 누구는 집값이 뛰는 걸 바라지만 누구는 생각이 다르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옥마을에 어울려 산다. 전주 토박이로 <전통문화지구 정책이 주민 사회에 미친 영향-전주 한옥마을을 사례로>라는 논문을 쓴 이선희 씨는 한때 주민 갈등이 무척 심했다고 말했다.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단다.

한옥마을을 걷다 보면 왠지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간판과 그림들이 눈에 띈다. 공공미술 작품들이다. 집중된 곳은 동문거리 쪽이다. 1970년대 전주 최고 상권이었던 동문거리는 1980년대 이후 눈에 띄게 몰락했다. 1977년 새로운 동서 관통로가 생기고, 1980년대 후반부터 학교와 관공서를 잇달아 옮겼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동문거리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공공미술 계획이 세워졌다. 2007년부터 본격 시작된 공공미술 작품들은 마을을 새롭게 바꿨다.



전주 한옥마을을 새로 단장하면서 간판을 고쳐 달았다. 간판이 달라지니 집 분위기가 달라지고, 집 분위기가 달라지니 마을 분위기가 새로워졌다.

또 벽에 꽃이 피었다.
술가가 그린 소나무엔
새들이 날아와
부딪혔는데, 전주
한옥마을 꽃 그림엔
벌이 날아올까.
우 나무가 자란다.
벽을 벗어나 하늘로
솟아오를 것처럼
줄기 색깔이 싱그럽다.



잘 단장한 가게 간판들이 예쁘다. '곰비곰비 문구'는 흰 바탕에 파랑과 빨강이 섞인 간판이 예쁘다. 푸른 하늘과도 잘 어울린다. 나무에 흰색으로만 이름을 쓴 '코스모스식당' 간판도 깔끔하다. 찻집 'nonoletto' 간판은 작지만 아기자기하다. 아담한 크기라 눈을 어지럽히지 않고, 네 가지 색깔이 어우러지며 눈을 붙든다. 이발소 간판은 떼서 방에 붙여놓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벽은 큰 도화지다. 어느 흰 벽 가득 꽃이 가득하다. 활짝 입을 벌린 분홍 꽃, 수줍게 오므린 주황 꽃, 필 지 말 지 고민하는 듯한 꽃. 가시 꽃. 곧게 뻗은 파이프와 꽃이 어우러지면서 묘한 즐거움을 준다. 자동차, 권총, 로봇, 헬크 등이 벽에 덕지덕지 붙은 벽도 있다. 무심코 지나는 발길을 붙든다. 어느 벽엔 석고 사람이 매달렸다. 누구는 몸을 굽혀 절을 하고, 누구는 야단을 맞아 속상한지 두 팔로 무릎을 얹은 채다. 누구는 의자에 앉은 자세다.

가장 재미있었던 작품은 벽을 꽉 채운 나무 그림. 간판이 '콩나루'다. 어린 시절 읽은 동화 <재크와 콩나무>가 생각난다. 그런 나무가 정말 있을 거라 믿었던 시절, 마당에 심은 씨앗이 집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걱정하곤 했다. 벽 가득한 나무는 즐거운 상상을 하게 한다.

공공미술 작품은 하늘 위에도 있다. 건물과 건물 사이 줄을 매달아

각종 조형물을 매달았다. 몸은 새, 머리는 사람인 조형물을 보면서 나도 그만 날고 싶어졌다.

한옥마을 여행에서 먹을거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가맥'이다. 이게 뭐 말인가 하니, '가게맥주'의 준말이다. 전주 한옥마을 안내를 맡은 토박이들은 우리 일행을 그곳으로 이끌었다. 새벽 가게는 시끌벅적했다. 또 다른 세상이었다. 여러 개 탁자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열심히 술을 따르며 인생을 논했다. 가게에서 술과 간단한 안주를 사서 마시는 거야 어느 도시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이곳 '가맥'이 유명해진 것은 다름 아닌 갑오징어 안주 덕분. 잘 말려 구운 갑오징어와 며느리도 비법을 모른다는 소스가 이곳 일대 '가맥'의 인기 비결이다. 갑오징어를 시켜 소스에 찍어 먹었다. 독특한 맛. 간장, 고추, 참기름 등이 섞인 것 같은데, 그 나머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곳을 자주 찾는다. 전주토박이는 집에서 흉내 내려다 결국 포기했다며 웃었다.



한옥마을을 둘러보며 하루가 고단했다면 '가맥'에서 피로를 풀 일이다. '가게맥주'는 전주에서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술 문화다.

《혼불》작가 최명희가 태어나고 자란 곳

한옥마을은 각종 전시관으로 가득하다. 공공기관이 국내 최초로 만든 술 박물관을 비롯해 옛날 만화, 잡지, 교과서, 만화영화 포스터를 볼 수 있는 추억박물관, 공예전시관 등이 인기다.

교동아트센터는 교동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내의류 업체



어른이 되어도 장난감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벽에 붙은 장난감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BYC의 옛 상표인 백양 메리야스를 만들던 항흥물산주식회사와 백양섬유주식회사 공장이 1980년까지 있던 곳이다. 한때 전국 내의류 시장 8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였다니 인기가 대단했다. 당시 노동자 숫자가 500여 명이었다. 옛 공장 터는 약 500평. 그 터 일부에 최명희문학관과 중앙초등학교가 들어섰다. 지금은 공장 굴뚝, 염색 공장 일부가 남았다. 봉제공장 건물 일부를 살려서 2007년 4월 개관한 게 교동아트센터다.

교동아트센터 옆은 최명희문학관이다. 전주를 대표하는 작가인 최명희^{1947~98}는 한옥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마을 곳곳에 작가의 흔적이 배어 있다.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쓰러지는 빛>이 뽑히면서 등단한 뒤, 1981년 동아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에서 《혼불》^{제1부}이 뽑히며 세상에 이름을 알린 작가는 불꽃처럼 살다 갔다.

문학관에 들어가니 작가가 쓴 엄청난 양의 원고 뭉치가 보는 이를 아찔하게 만든다. 가위와 칼, 만년필 묶음용 끈에선 장인정신이 느껴진다. 이시영 시인이 쓴 글을 읽자니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썼는지 어슴푸레 느껴진다.



최명희는
한국문학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는 전주의
자람이 되었다.

한길사가 있던 신사동 어느 카페였는데 고정희와 함께 셋이서 이숙토록 맥주를 마신 것 같다. 밤이 늦어 방향이 같은 그와 함께 택시를 탔을 때였다. 도곡동 아파트가 가까워지자 그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울먹였다. ‘이형, 요즈음 내가 한 달에 얼마로 사는지 알아? 삼만 원이야, 삼만 원……. 동생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모두 거절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고향 친구랍시고 겨우 내 손을 잡고 통곡하는 그를 달래느라 나는 그날 치른 학생들의 기말고사 시험지를 몽땅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홀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그가 얼마나 하기 힘든 얘기를 내게 했는지를. 그러자 그만 내 가슴도 마구 미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다. 《혼불》은 말하자면 그 하기 힘든 얘기의 긴 부분일 것이라고.

한옥마을 가운데는 실개천이 흐른다. 물이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물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2008년 이곳을 찾았을 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둘이 물장난을 친 게 떠오른다. 뭘 그리 재미있게 노나 엿보았는데 다슬기였다. 도시 한복판에서 보는 다슬기라니! 아이들이 노는 모습에 폭 빠져 한참을 가만히 앉아서 구경했었다.

순교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전동성당

한옥마을 전체를 보려면 전통공예전시관 뒤 오목대 방향으로 나있는 역사탐방로를 걸어보자. 천천히 산길을 밟으며 오르노라면 한옥이 바다를 이룬 모습에 절로 감탄사가 쏟아진다. 무엇보다 흙길은 걷기에 좋다.

산꼭대기에 있는 오목대는 태조 이성계 4대조인 목조 대왕 이안사(李安社)가 놀던 곳이다. 고려 우왕 6년(1380) 이성계가 왜구를 무찌르고 돌아가는 길에 들러 종친들과 전승축하잔치를 벌였다. 이성계와 경쟁 관계였던 정몽주의 단심가가 걸려 있어 이채롭다. 당시 정몽주는 이성계의 종사관이었다. 서로에게 칼을 겨눈 두 사람은 후대에 이르러 이렇게 한 건물에서 만났다.

전동성당이다.
여 년 전 이곳 일대는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이제 핏빛은 사라지고
연인들은 그곳에서
낭만을 이야기한다.



산에서 아래를 굽어보면 성당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전동성당이다. 한없이 포근하게만 보이는 성당 건물과 달리 200여 년 전 이곳 일대는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성당 일대는 한국 최초 순교자인 윤지충(尹致忠)과 이종사촌인 권상연(權相演)이 순교한 곳이다. 1791년 여름 어머니상을 당한 윤지충은 국교인 유교 상례



도시에서 흙을 보는 것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한옥마을 흙벽에 몸을 기대고 온기를 느꼈다.

대신 천주교식 제례를 따랐다. 그 해 12월 8일 권상연과 함께 참수됐다. 잘린 머리는 9일간 저잣거리에 매달렸다. 왕명에 의해서였다.

개혁군주로 이름 높았던 정조도 유교가 흔들리는 것은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다. 1801년 9월 17일에는 윤지충 아우인 윤지현프란치스코, 유헌검과 아우 관검이 대역부도죄로 육시형을 당했다. 시체를 여섯 조각으로 찢어 소금에 담가 여러 지역에 보내 사람들에게 공개한 형벌이다. 이 외에도 김유산토마스와 이우집이 이 일대서 참수됐다. 한국에서 처음 일어난 이 천주교 박해 사건을 신해박해辛亥迫害라 부르며 진산사건珍山事件으로도 불린다.

1세기가 지나 보두네Baudoune 신부는 수많은 사람이 피를 뿌린 땅 위에 성전 건립을 계획한다. 1907년에 시작해 1914년에 완공된 성당이 바로 전동성당이다. 건물 주춧돌이 풍남문 성벽을 헐어낸 돌로, 호남 최초 서양식 건물이다. 영화 <약속> 촬영지가 바로 전동성당이다. 극 중 강패로 나오는 박신양과 연인인 전도연이 무릎 꿇고 앉아 슬픈 결혼식을 올린 곳이다.

전동성당은 피를 자애와 사랑으로 씻어냈다. 그 자리에선 어떠한 처절함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전동성당은 나이를 먹었고, 한옥 마을 속에 곱게 자리를 잡았다. 겉에서 보기엔 예쁘기만 한 한옥마을이지만 마을엔 사람이 산다. 마을이 자랑스러운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다. 한옥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흔적도 남아있다. 전주 한옥마을은 그렇게 역사를 쌓고 쌓으며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